

# 詩로 노래하는 '광주의 아리랑'

31주년 맞은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예술의전당서 내일 공연  
5·18, 남도의 노래 등 모티브  
시낭송·시극·라틴송 등 다채



광주재능시낭송협회가 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을 펼친다. 회원들의 공연 장면.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제공>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문순·재능시낭송협회)는 그동안 시낭송 전문 단체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993년 광주에서 창립된 지역 최대 시낭송 단체로 그동안 정기적인 시낭송을 비롯해 공연을 선보여왔다.

재능시낭송협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시(詩)로 노래하는 광주의 아리랑'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11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 퍼포먼스를 비롯해 시낭송, 시극, 라틴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문학진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역 시인을 알리고 보석 같은 시를 시낭송, 시 퍼포먼스, 시극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5·18, 남도의 노래, 새터민 등 무게감 있는 시들을 모티브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인은 물론 시낭송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무대는 최인영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연다. 다음으로 김문순 회장이 '눈이 부시게'를 낭송하며, 이어 전 회원이 출연해 이근모 시인의 '남도의 노래' 시를 낭송한다.

김효연 전임회장은 요들송을 선사해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탈북민의 삶을 노래한 전주 시인의 '새터민'을

모티브로 한 시 퍼포먼스는 김귀숙, 박애정, 김영이, 윤영숙, 장철환, 김형순이 참여한다. 전원별 시인의 '해를 품은 달'은 김혜숙, 김미혜, 김병중, 김효연, 김세린, 박성애, 양명희, 서애숙이 출연해 낭송한다.

박애정, 박복숙, 이미경, 박영숙은 팬플룻을 연주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한다

80년의 상흔을 조점화한 무대도 마련돼 있다. 강대선 시인의 '그리하여 희망, 80년 0월'을 모티브로 김문순, 박영미, 송성근 등 회원들의 위무와 희망의 무대가 펼쳐진다.

변재현의 전자바이올린 공연에 이어 박덕은 시인의 '당신의 저녁이 되고픈 날'이 박영미, 나정숙, 최명희 등의 합송 형식으로 선사된다.

일등만을 요구하는 현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반영한 무대도 눈길을 끈다. 김문순이 연출한 나태주 시인의 '팬찮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마'는 오늘의 현 세태를 반영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위

안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러라틴 재주 가수 박수아의 라틴송과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아버지'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김종 시인의 '조선을 열지리라' 시퍼포먼스는 김수하를 비롯해 전경숙, 김운선, 윤점숙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문순 회장은 "시를 한 편 읽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별 하나를 품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 시인의 보석 같은 시를 짧은 시간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연습해 본 공연을 마련했다"며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 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 시의 향기로 바쁜 가슴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힐링과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능시낭송협회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상무역 '시민과 함께하는 목요일 낭송'을 비롯해 '찾아가는 시낭송' 등 재능기부를 통해 시낭송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연의 문화카페

윤영달(78) 크라운해태제과그룹회장은 요즘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 같다. 올 봄 음원 차트를 휩쓴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 덕분에 자사 상품인 '연양갱'의 매출이 급신장한 데다, 문화예술에 특별한 애정을 보인 공로로 제12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1945년 출시한 연양갱의 '역주행'을 보며 새삼 문화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문화예술계에선 잘 알려진 아트 경영인이다. 20년전부터 국악의 매력에 빠져 예술과 인연을 맺은 그는 회사에 동아리를 만들어 예

'글로벌 아트페어'라는 타이틀로 개막된 '2010 아트광주'가 대박을 낸 데에는 윤 회장의 '후광'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오픈아트페어조직위원회 위원장(2009~2010)으로 미술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앞장서온 그의 면면을 보고 기업이나 '큰손'들이 광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마련된 VIP라운지에는 윤 대표와 만나기 위해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당시 행사를 찾은 작가들은 윤 대표와 같은 기업인들이 광주에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에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드물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라는

## 문화를 살찌우는 아름다운 동행

술인을 초청하는 등 직원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간 수익의 10%를 문화예술관련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한다.

사실, 윤 회장은 광주에도 인연이 깊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열린 '2010 아트광주'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국내 기업인들과 유명 컬렉터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본업 이상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당시 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대표와 함께 여름 휴가를 반납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 서울과 광주를 오갔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열정 덕분에 박여숙 화랑 등 국내 메이저 화랑 20여 곳은 물론 영국의 리슨갤러리 등 해외에서 40여 곳의 화랑이 참가해 국내미술계를 놀라게 했다. '아트광주'를 앞두고 광주뿐 아니라 목포 전주 등 인근 도시의 호텔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행사 기간의 서울-광주 비행기 좌석도 예약이 꽉 찼다.

위상이 무색하게 광주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메세나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15대 기업이 지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서울(37.6%)의 12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술인들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영남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이 대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는 사례는 생각거리를 던진다. 문화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광주예술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모를지, 지역의 문화를 꽃피게 하는 밑거름은 다름 아닌 메세나다. 머지않아 광주에도 '아트경영'의 전도사들이 많아질지 바라본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가야금병창 신명에 여름밤 무더위 훌훌~

'수궁가 이수자 연창 발표회'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예술단 별발가얏고가 공연하는 장면. <빛고을국악전수관 제공>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태산이 붕괴(崩頽)하고 오성이 암암하여 시일갈상(時日曷喪) 노랫소리 역조장생(億兆蒼生) 원망 중에..."(판소리 '수궁가' 중 '말을 허라니' 대목)

예술단 별발가얏고가 '수궁가 이수자 가야금병창 연창 발표회'를 오는 1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며 제 757회 목요국악 시리즈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 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명창 문명자가 도창 역할을 맡으며, 고수 박시양이 출연할 예정. 공연은 이수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단가 공명

가'로 막을 연다. 서도와 남도의 이질적인 분위기가 깃들여 있는 작품으로 두 지역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 김효정은 '탑상을 탕탕, 뚝뚝의 현운 흑운이'를, 김다은은 '악성가, 승상은 거북'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육지로 나갈 자라에게 쥐어 줄 토끼의 초상화를 그리는 대목인 '화사자 불러라'는 강세희의 목소리에 실린다. 송은영은 '여배라 주부야, 여보나리'로, 김혜인은 '고고천변, 원해수변'을 부르며 송은지가

들려주는 '한 곳을 바라보니'도 레퍼토리에 있다.

끝으로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범피종류'는 김서운,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갈라보라며 괴를 부리는 '말을 허라니'는 표윤미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이수자 전원이 어우러지는 '가자어서가-관대장자' 대목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경영난' 문학사상, 신인문학상도 중단

구독자 급감에 재정 악화 누적

이상문학상을 주관해온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이 휴간에 이어 신인문학상 시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문학사상은 최근 공지를 통해 "월간 '문학사상'이 올해 5월호부터 일시 휴간 중인 상황에서 2024년 신인문학상 역시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1972년 창간한 월간 문학사상은 한 때 한국 최고 권위를 자랑했던 종합문예지로, 2024년 4월호까지 통권 618호를 발행했다. 문학사상 신인문학상도 창간 2년 뒤 제정해 그동안 신진 작가들의 주요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월간 문학사상은 올해 4월호까지 나온



뒤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다. 문학사상사는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단편문학상인 이상문학상의 주관사 타이틀도 다산콘텐츠그룹으로 넘겼다.

최근월간 문학사상의 휴간, 이상문학상 주관사 변경, 신인문학상 중단 등은

오랜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월간 문학사상의 정기구독자는 전성기에 1만명이 훌쩍 넘었지만, 문학의 위상 약화와 출판환경의 변화로 구독자가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수백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사상사의 적자도 매월 1억원 이상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